

농도 전남, 농축수산물 유통 인프라 취약...물가 상승률 전국 최고

8월 소비자물가 1.1% 올라...장마·폭우에 농축수산물값은 12.2% 급등

농축수산물 유통 인프라가 취약한 전남 지역이 지난 달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물가가 올랐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공급에 차질을 빚은 광주·전남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폭은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광주 0.6%, 전남 1.1% 상승했다.

광주·전남 물가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지난 달 전남지역 물가 상승률은 0%대를 벗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8월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은 0.7%였고, 전남에 이어 인천·경남(각 0.9%), 서울·충북·충남(0.8%), 경기·전북(각 0.7%), 광주·대전·강원(각 0.6%), 울산(0.5%), 부산(0.4%), 대구·제주(각

0.2%), 경북(0%)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남이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데는 빈약한 농축수산물 유통 인프라와 식료품 이외 제품·서비스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받았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전남지역 상품 가격은 전국에서 최대 상승률(1.7%)을 보였지만, 서비스 부문은 전국 평균(0.3%) 상승률과 같은 수치를 머물렀다. 석유류나 가공식품을 포함한 공업제품도 제주(-1.5%), 경북(-1.1%), 강원(-1.0%)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하락 폭을 나타냈다.

전기·수도·가스요금도 전국적으로 4.4% 내릴 때 전남지역은 3.2% 하락하는데 그쳤다.

지역 물가 상승은 기록적인 폭우 피해가 집중된 농축수산물이 주도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광주 10.3%, 전남 12.2%로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월(광주 14.1%·전남 9.4%) 이후 3년 7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광주 17.0%와 전남 17.4% 등 큰 폭 상승했다.

배추 가격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60~70%대 올랐고, 호박은 50% 넘게 뛰었다. 돼지고기 가격은 광주 7.4%, 전남 21.3% 올랐고, 쌀의 경우 광주는 4% 떨어진 반면 전남은 0.2% 소폭 올랐다. 오이 가격은 광주 18.6%, 전남 2.4%의 하락률을 보였다.

휘발유와 경유는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달 휘발유 가격은 광주 8.8%, 전남 8.3% 떨어졌고, 경유도 광주·전남 모두 13.9%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한편 전국 평균 전셋값이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광주 월세 상승

률도 2018년 7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지난 달 광주지역 월세는 1년 전보다 0.5% 올랐는데 이는 2018년 7월(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8월 광주·전남지역 전세는 각각 0.3% 올랐고, 월세의 경우 광주는 0.5%, 전남은 0.1% 상승했다.

전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상승했다. 이는 지난 3월(1.0%)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장마에 따른 채소류 가격 상승 등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쳐 전남 물가 상승률이 1%대를 나타냈지만 0%대 저물기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유가 인하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과 도시가스 인하, 고교 납입금 지원과 유치원 납입금 지원 확대 등에 따른 공공서비스 하락,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4월 이후 지역의 0%대 저물기는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64.37 (+14.82)	↓ 금리(국고채 3년)	0.923 (-0.054)
↑ 코스닥	866.74 (+13.37)	↑ 환율(USD)	1185.40 (+2.40)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400만 돌파

광주은행 웃는 이유는?

30억 출자...분산투자 가능성 보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처음 투자한 영화가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새로운 분산투자의 가능성을 보였다.

광주은행은 영화투자 펀드인 'QCP컨텐츠투자조합26호'에 30억원의 자금을 출자하며 영화산업 진출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QCP컨텐츠투자조합26호' 펀드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CJ ENM'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국영화 등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CJ ENM이 투자하는 모든 영화에 총제작비의 일정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이 펀드는 광주은행 외 11개 기관에서 235억원의 자금을 출자하고, 운용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주)가 15억원을 더해 총 250억원의 규모로 조성됐다. 그 중 일부는 지난 달 5일 개봉한 한국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감독 홍원찬·사진)에 투자했다.

통상 영화 배급사의 수익은 부가세 10%와 영화진흥발전기금 3%를 제외한 매출액의 절반을 극장과 나누고, 이후 배급 수수료 10%를 제외한 수익을 투자사와 제작사가 6대 4로 나누는 구조이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광주은행이 투자한 이 영화 1일 기준 누적 관객은 427만명에 육박했다.

특히 스크린 자막(엔딩 크레딧)을 통해 광주은행 사명이 노출되면서 홍보 효과도 누리고 있다는 것이 광주은행 측 설명이다. 광주은행은 이번 영화펀드를 시작으로 다수 영화 제작 투자에 참여할 방침이다.

송중욱 은행장은 "이번 'QCP컨텐츠투자조합26호' 펀드에 자금을 출자함으로써 투자방향 및 전략을 다각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 기회에 분산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 효과를 극대화하며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영화산업 진출 외에도 앞서 2016년부터 국내 대표 한국화 공모전 '광주화루'를 열어 지역 문화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화 '포레나 순천' 1순위 마감...경쟁률 48대 1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이 순천에 첫 번째로 선보인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 '포레나 순천'이 전 주타형 1순위 마감했다.

2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포레나 순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392가구 모집에 1만8831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48.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청약 경쟁률은 119㎡ 타입으로 111.55대 1을 기록했으며, 이어 101㎡ 타입 90.64대 1, 84㎡A 타입 49.73대 1, 84㎡B 타입 18.71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순천에 처음 들어서는 한화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포레나'에 대한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분석이다.

한화건설은 포레나 순천에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는 '포레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하고, 특화상품인 창의적 놀이공간 '메리 키즈 그라운드'를 비롯해 휘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독서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일 이뤄지며,

21일부터 23일까지 정당 계약이 진행된다. 3.3㎡당 평균 980만원대 분양가로,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부담을 줄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2023년 1월 입주 예정인 포레나 순천은 지하 2층-지상 18층, 9개동, 613세대 규모로, 전용면적별로는 ▲84㎡A 246세대 ▲84㎡B 265세대 ▲101㎡ 67세대 ▲119㎡ 35세대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면 일대는 인근 순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과 22만여㎡ 규모의 삼산공원 조성사업 등이 예정돼 있는 등 신성장거점으로 꼽힌다.

순천동천과 강정수변공원을 남동향으로 조망하고 있고, 삼산로와 순천IC 접근과 호남·남해고속도로 간·출입이 수월하다는 게 장점이다. KTX순천역과 순천종합버스터미널 등 교통여건을 비롯해 대형마트와 문화건강센터, 순천의료원 등 주변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상회'서 지역 중기제품 구입하세요 2일 롯데아웃렛 광주수원점을 찾은 고객들이 2층에 마련된 '호남상회' 점포에서 지역 우수중소기업 11개사의 19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광주테크노파크가 엄선한 필터 샤워기, 신발 살균건조기, 차량 흡음방지 등 제품들은 다음 달까지 만날 수 있다. <롯데쇼핑 제공>

키농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9월호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연희네 슈퍼

가을에 '뉴트로' 하실래요?

문화상품, 카페, 생필품 북고 마케팅 열풍 90년대 감성 그룹, 레트로 음반 러시 여기가 레트로 '캠성' 넘치는 곳

기획: 화가가 사랑한 정원 모두의 명소가 되다

건축: '축설현' '윤보의 집' 모네의 정원 민병희씨의 '화가의 정원사'

문화는 품은 건축물 2: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빼어난 건축미 입소문 신안 압해읍종합복지회관

클릭, 문화현장 10: 목공, 주얼리, 도자기 등 체험 양림 팽귤마을 공예특화거리

예향이 만난 이 사람: KIA 타이거즈 마운트 고졸 루키 셋별 정해영

예향 초대석

한복 디자이너·전통 복식연구가 김혜순 "한복 짓기는 자기다움 찾아가는 것"

우리 땅 우리 문화 3: '불법이 머문' 천년 고찰 속리산 법주사

문화 트렌드: 5060 세컨드라이프 '슬기로운 집콕생활'

문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프로그래진 심장을 짝 피자" 8월의 책,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전시 리뷰: 이강미술관 <2020 Earth & Museum 7기 4월 10일~11월 15일>전

스포츠 회재: 유연준의 도시건축 10: 부동산 정책의 정치학

'가난한 꿈부자' 레슬링영웅 김원기 3주기: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10: 세계가 열광, 한류 스타의 어제와 오늘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10: 바그너의 '종합예술' 혁명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10: 화가 광인식의 할매공방

자연속 가족과 함께: 2020 Earth & Museum 7기 4월 10일~11월 15일

심진강과 철길따라서: 트실 토란, 명품 멜론